

## 광고

### 1. [성탄절]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예배는 비 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성탄절헌금은 계좌이체(기업은행 085-056206-04-047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름 성탄헌금” 이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나 혹은 이후 대면예배 시 하시면 됩니다.

### 2. [기부금확인서]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확인서가 필요하신 성도님들은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거나 본당 뒤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성단, 차 접대 신청]

2021년도 성단, 차 접대를 사랑으로 섬길 분들은 본당 입구에 준비되어 있는 신청란에 이름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 성탄절예배

온라인예배

“성탄, 기쁨의 좋은 소식”

일시: 2020년 12월 25일(금) 오전 11시 30분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부흥

회복

# 성탄절 예배

오전 11시30분

인도: 이진우목사

목도 .....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1장 21절] 오 르 간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찬 양 찬송가 125(통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 다 같 이

대 표 기 도 ..... 이진우목사

성 경 봉 독 ..... 누가복음 2장 8~14절 [신약p.89] ..... 인 도 자

설 교 ..... 성탄, 기쁨의 좋은 소식 ..... 인 도 자

헌 금 봉 헌 ..... 다 같 이

봉 헌 기 도 ..... 인 도 자

교 회 소 식 ..... 인 도 자

## 성탄찬송(다같이)

찬 양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 다 같 이

축 도 ..... 이진우목사

성탄, 기쁨의 좋은 소식  
누가복음 2장 8~14절

본문 8절에서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라고 했습니다. 때는 밤 시간입니다. 시간적으로 밤이었지만 비단 시간적인 것 뿐 아니라 시대적으로도 밤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밤이요, 영적인 밤이었으며, 모든 것이 어둡고 소망이 없는 밤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로마가 통치하고 유대는 그 속국이었으며, 로마에 충성하기 위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유대의 사람들은 소망 없는 밤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분봉 왕 헤롯이 잔인하게 독재정치를 행함으로써 여러모로 소망 없는 밤이었습니다. 의인은 고난을 받고, 백성은 살해당하며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밤이었습니다. 율법종교인 유대교는 극도로 타락하여 형식만 남은 형편이었습니다. 이렇게 칙칙 같은 암흑 속에서도 자기네 양떼를 지키는 성실한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갑자기 주의 영광이 비취면서 천사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암흑 같은 밤, 실망과 좌절만 있는 밤, 억압과 착취가 있는 밤 이어도 목자들이 자기의 맡은 사명에 성실히 다했을 때,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모든 상황이 어둡고 캄캄한 밤 시간을 보내다 할지라도 성도가 자신의 자리에서, 주어진 직분과 직책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이 기쁨의 소식과 찬송의 소리가 우리 삶 가운데 울려 퍼질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라는 시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영상 예배로 성탄절 예배를 합니다. 지난 일 년 동안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도, 성도로서 마땅히 하는 예배도, 또한 경제적으로도 참 많은 상실의 시간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며 함께 예배함으로 우리의 자리에서 잘 참고, 견디고, 지켰던 우리 모두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선포 되어 위로와 평안과 소망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성탄의 기쁜 소식은 어떠한 소식이었습니까?

1.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 이는 임마누엘, 즉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며, 어둡고 소망 없는 밤에 빛이 비추고, 이 빛으로 이제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상은 밤이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 기쁜 소식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에 밝은 빛이 임하고 어둠은 물러가며 밝은 광명의 역사가 참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임하셔서 어둡고 소망 없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며 더욱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온 인류에게 참된 소망의 소식이었습니다.

- 가장 짙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것은 작은 빛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두운 밤을 밝히는 참된 빛이시며, 소망 없는 이 시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사상도 이념도, 민족도, 시간도 시대적 상황도 뛰어 넘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며, 영생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삶의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코 회복될 수 없고, 끝이 보이지 않고 돌이킬 수 없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구원이요, 회복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참된 소망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소망을 품은 자들입니다. 그 소망은 신기루 같은 헛된 꿈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3. 영광이요 평화의 소식이었습니다.

-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거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확연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로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구원과 회복, 지키심과 보호하심,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언약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언약의 복이 성취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에서 자유를, 병든 자에게는 치유가, 맘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지키시고 보존하시며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에 분명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그리고 저 하늘에서도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기쁨의 좋은 소식이 선포되며 이루어지는 은혜가 함께하는 성탄절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